



'모두의' 국어 개념

16/11/08판

/ 계열관계 ≡ 유사관계 ↔ 반의관계 [예] 예시

개념	설명
[0-7]	
1인칭 관찰자 시점	작품 속 서술자가 다른 인물인 주인공을 관찰하며 사건을 서술.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
1인칭 주인공 시점	작품 속 서술자가 주인공이 되어 행위와 사건을 서술. 내가 주인공. 주관적 성격. 신빙성 up, 다른 인물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기 힘든 한계를 지님.
3인칭 작가 관찰자 시점 ≡ 극적 구성	작품 밖 서술자가 인물의 대사와 행동을 중심으로 사건을 서술. 매우 객관적인 성격. 주인공이고 엑스트라라고 전부 대사와 행동으로 이야기를 전개함. 속마음은 알 수 없음.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작품 밖 서술자가 인물과 사건의 모든 부분을 주관하여 서사를 진행. 주관적인 성격. ※ 초점인물(특정인물) ≡ 제한적 전지적 시점에 대한 서술이 가능한 시점. ※ 제한적 전지적 시점 참조
가정(형)	일어나지 않은 상황을 있음직하게 생각함. 가정형 부사 '만일'과 함께, 가정형 어미 -(다)면, (-라)면, -든의 형태로 드러남 [예] (만일) 도착한다면, (만일) 도착이라면, (만일) 도착하거든 연락좀 다오.
간결한 문장 ≡ 짧은 문장 ≡ 호흡이 짧은 문장, 문체	짧은 문장(훈문장)으로 이야기가 진행. 대체로 긴장감이 up.
간접 제시 ≡ 보여주기 ≡ 극적 제시 ↔ [예] 말하기	서술자가 인물의 성격을 대사와 행동으로 제시하여 독자에게 판단을 맡김. 독자의 자유도가 높음. ↔ [예] 서술자가 인물의 성격을 직접 제시함.
갈등 ≡ 반목 ↔ [예] 갈등의 해소	01. 인물과 인물, 인물과 사회, 인물과 자연 등 구성요소끼리 부딪히는(충돌하는) 부분이 있는 상태 ↔ [예] 갈등, 반목이 모두 끝난 상태. 02. 마음 속이 안좋은 상태
감각적 심상	인간의 오감(시/청/후/미/촉감)을 불러일으키는 표현 기법. [예] 향기/소리/푸름/달콤함/시원함
감상적 분위기 ≡ 애상적 분위기	아프고 슬픈 느낌을 주는 분위기
감정	마음에 일어나는 느낌. 주로 '희' '노' '애' '락'의 네 종류로 이루어짐.
개성적 인물	작품 속 사회 질서와 어울리지 않는 인물형. 튀는 사람. [예] 홍길동, 춘향, 임궫정
객체 ↔ [예] 주체	행위의 대상이 되는 존재 ↔ [예] 행위를 하는 존재 [예] 내가(주체) 너를(객체) 좋아한다
감정이입	외부의 사물(유정, 무정물)에 화자(서술자)의 감정을 투영하여 드러냄. 주로 감정에 해당하는 어휘가 드러남. [예] 사슴의 무리도 슬피 운다. ※ 객관적 상관물 참조
객관적 ↔ [예] 주관적 태도	행위자의 심리, 생각이 드러나지 않은 태도 ↔ [예] 행위자의 심리, 생각을 중심으로 한 태도. 서술자(화자)가 자신의 내면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외부의 사물, 환경을 이용하여 내면을 드러낼 때 쓰이는 대상들.
객관적 상관물	[예] 영화를 보러 갔는데, 나만 빼고 모두 쌍쌍이었다. 나만 빼고 다 짝이 있었다. 나만 빼고 다 2인 용 먹거리를 들고 있었다. 심지어 누군가 버리고 간 쓰레기도 가지런히 두 개씩 모여 있었다. 자 리도 키플석만 남아 있었다.
격정적 분위기, 어조, 태도 ↔ [예] 답답한 분위기	화자, 서술자, 인물이 품고 있는 강렬한 감정을 감추지 않고 그대로 드러냄 [예] 아! 내가 세상에 태어났음을 원망 않고 보낸 / 어느 하루가 있었던가! '허무한디'
결론 ≡ 주제	서술자가 품고 있는 궁극의 생각, 주장.
경건한 분위기	고요하고 엄숙하게 몸을 삼가는 분위기. [예] 교회, 절, 성당, 장례식장.
경외감	대상에 대해 품는 존경심과 두려움. 주로 인간의 능력 밖에 있는 대상으로부터 느끼게 됨 [예] 깎아지른 높은 골짜기를 보니 경외감이 절로 든다.
경어체	존대를 드러내는 어미를 이용하여 작품을 써내려가는 문체. [예] 난 관찰합니다.
고사(를 이용한 서술)	과거의 유명한 일화((주로 중국에서의)를 언급하며 내용을 이어나감). 주로 자신의 의사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함. [예] 예전 중국의 진시황이 말이야, 그렇게 늙기 싫어했다는 거 아니야.
골격미	해학과 풍자로 구성된 1. 있어야 할 것이 없는 데에서 혹은, 2. 있어야 할 것을 깎아 내리는 데에서 드러나는 미의식.
공간(의 이동)에 따른 구성	공간의 이동에 따라 내용이 전개되는 구성 방식. 반드시 2개 이상의 공간적 배경이 확보 되어야 성립함.
공감각적 심상 ≡ 감각의 전이	작품 속 특정 상황(여러 상황이 아님)을 표현할 때, 하나의 감각이 끊어지지 않은 상태로 다른 감각으로 옮겨가는 표현. [예] 푸른 종소리. / 나는 친구의 말을 씹어 먹었다.



개념	설명
공시적 ↔ ㉠ 통시적 관점	특정 시간대를 바탕으로 대상에 접근하는 관점. 시간적 변화의 변화가 드러나지 않음. 예) 21세기를 중심으로한 고유어로된 욕 연구 ↔ ㉠ 시간, 시대의 흐름을 바탕으로 대상에 접근하는 관점. 2가지 이상의 시간적 배경이 필요함. 예) 18~21세기 사이의 고유어로된 욕 연구
과장	상황, 사건을 매우 크게 혹은 매우 작게 드러내는 표현 방식. 예) 이따만한 파도에 오그라든 그의 콩알 만한 배짱
과정	상황, 사건의 진행을 흐름에 따라 서술하는 방식. 예) 시계의 작동 원리.
관념 ≡ 추상 ↔ ㉠ 구체	1. 물질, 구체적으로 감각하기 어렵고 사람의 생각 속에서(만) 존재하는 상황 예) 사랑과 평화 2. 현실과 동떨어진 ↔ ㉠ 현 예) 그래 뭐 너의 의견은 좋지만 관념적이라 실생활에 그것을 적용하긴 어려울 것 같은데?
관용어/관용구/관용적 표현	언어 사용자들에 의해 습관적으로 쓰이는 말들의 집합. 현대 국어에서는 한자성어, 속담, 관용구로 구성됨. 예) 십시일반(성어), 티끌 모아 태산(속담), 그이는 눈이 높다(관용구)
관점	대상, 상황에 대해 품고 있는 생각.
관조적 태도	사물, 상황에 거리를 두고 관찰하는 방식. * (대체로) 객관적 성격을 띠.
구도적 자세	도를 구하는 자세, 종교적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행위
구어체 ↔ ㉠ 문어체	일상 대화에서 쓰는 대화 양식을 작품에서도 그대로 드러내는 방식. 예) 그러다 길동이 자기 혼자 넘어졌다. ↔ ㉠ 주로 고전 산문과 같은 글에서 볼 수 있는, 글에서 주로 쓰이는 문체 예) 그러다 길동이 제 혼자 넘어졌더라.
구체적 ↔ ㉠ 추상적, 관념적	감각할 수 있는 사물, 상황 등의 집합. 예) 1,000,000,000원 ↔ ㉠ 실재實在를 통해 감각할 수 없는 생각, 감정 등의 집합. 예) 그림움, 사랑과 평화
귀납추리 ≡ 귀납법	유사한 여러 사례들을 바탕으로 하나의 원리를 도출해내는 추리 방식. 예) 내가 장남감을 만지니 고장이 났다. , 내가 전자 제품을 만지니 고장이 났다. 내가 사람을 만지니 병이 났다. → 나는 무언가를 잘 고장내는 사람이다
근경近景 ↔ ㉠ 원경遠景	가까이서 바라본 경치 ↔ ㉠ 멀리서 바라본 경치 * 무엇이 더 큰 배경인지를 따져 판단할 것! 예) 산골짜에 다람쥐 아기 다람쥐 → 산골짜(원경), 다람쥐(근경)
긍정적 ≡ 우호적 태도	대상에 대해 느끼는 좋은 감정, 태도. (연민, 예찬을 포함할 수 있음)
기승전결식 구조	주로 한시漢詩에서 상황을 네 단계로 나누어 진행하는 구성상의 특징. 기-인트로 승-템포 업 전-클라이막스 결-엔딩.
[나]	
낙관적 태도 ≡ 긍정적 태도 ≡ 희망의 태도	미래 혹은 현재 상황을 밝게 생각하며 바라보는 태도. 예)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거외다.
남성적 ↔ ㉠ 여성적 어조	크고, 거친 표현, 말투 ↔ ㉠ 작고, 부드럽고, 섬세한 말투. 예) 맘에 안들면 다 부숩버릴테다! ↔ ㉠ 마음에 안드는 일이 있거든 그저 훌쩍훌쩍
낭만 / 낭만적 분위기 ≡ 환상 / 환상적 분위기	현실이 아닌 것 같이 환상적인 상황, 분위기. 예) 나는 아직도 별이 비처럼 끝없이 쏟아지던 안나 푸르나의 밤하늘을 잊을 수 없다.
낯설게 하기 ≡ 참신한 표현, 신선한 표현	일상, 평소와 다른 이야기, 표현
내재율 ≡ 자유시 ↔ ㉠ 정형시	1. 겉으로 운율감이 드러나 있지 않은 서정 갈래. 음보와 음수율이 드러나 있지 않은 상태. 2. 정형시를 제외한 작품들 예) 시조, 가사를 제외한 작품들 ↔ ㉠ 겉으로 운율감이 드러나 있는 서정 갈래. 음보와 음수율을 지닌 작품들 예) 고려 가요, 시조, 가사
내재적 관점	작품을 감상할 때 작가, 시대, 독자를 고려하지 않고 작품 안에서만 감상점을 찾아 감상하는 관점. 주로 작품 속 서술자(화자), 표현, 어휘, 구성상의 특징, 주제로 구성.
내적 갈등 ≡ 내면 갈등	한 인물의 마음 속에 싸트는 갈등. 반드시 마음 속에서 양쪽으로부터의 부딪힘이 드러나야 함. 예) 자장면인가 잡채밥인가
냉소적 어조 ≡ 비판적 태도	대상, 상황을 차갑게 비웃는 태도 예)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잘 될 리가 없다고 생각하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논거	주장의 근거
[다]	



개념	설명
단호한 ≡ 단정적 어조 ≡ 직설적 태도(어조) ↔ 우회적 태도	상황에 대해 딱 잘라 말하는 태도, 어조. 예) 야 너 냄새난다. ↔ 뻔 돌려 말하거나 부드럽게 전달 하려는 태도, 어조 예) 너의 근처에서 뭔가 매우 독특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아.
달힌 결말 ↔ 열린 결말	이야기의 결말이 완전히 매듭지어져 더 이상의 사건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상황. 예) 제이슨 본이 죽었다. ↔ 뻔 이야기의 결말을 독자가 자유롭게 마무리지을 수 있는 상황. 예) 제이슨 본의 행방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달관의 태도 ≡ 초월적 태도	(남들은 신경쓰는) 사소한 사물이나 일에 얽매이지 않는 인생스타일. 예) 바닥에 떨어진 돈 백 만원을 가볍게 밟고 지나가는 꼬마.
담담한 어조 ≡ 평탄한 어조 ↔ 격정적 어조	발화자의 감정이 드러나지 않는 어조와 분위기. 예) 나는 오늘 구두를 하나 샀다. ↔ 뻔 발화자의 감정이 매우 크게 드러나는 어조와 분위기. 예) 나는 오늘 마음이 서러워 빌어먹을 검정색 구두를 한 켤레 사고 말았던 것이다!
대결의 태도	대상, 상황과 반목하여 대상, 상황에 맞서는 태도.
대구	구가 대응됨. 문장 전체 혹은 문장의 일부가 서로 맞닿아 있어 운율감이 조성되는 표현 방식, 주로 유사한 형태의 어휘와 문장 구조로 드러남. A가 B고 C가 D일 때, A=C, B=D가 유사한 형태를 띰. 운율감 대폭 상승! 예) 하늘은 날더러 구름이 되라 하고, 강물은 날더러 바람이 되라 하네
대유	작은 부분으로 전체를 빗대어 드러내는 비유적 표현 예) 더 이상 뽕 없이는 공부 하지 않겠다. → '뽕'으로 음식을 대유 예) 대갈이 아저씨에게 가가거겨 배웠지요 → '가가거겨'로 한글 전체를 대유
대응 ≡ 호응 ≡ 조응	주어진 상황, 어휘, 문장이 서로 맞닿음. 서로 관계가 있음. 이 때 두 상황은 서로 유사한 의미와 성격을 지닌 경우가 많음.
대조 ≡ 대비 ≡ 상반	주어진 상황, 어휘, 문장이 서로 반대의 의미를 지님. 예) 바보와 안 바보
대화의 어조 ≡ 대화체 ≡ 대상에 말을 건네는(듯한) 방식 ↔ 독백의 어조	1. 구체적 청자를 설정하여 그 대상에게 대화를 시도하는(말을 건네는) 표현 방식. 예) 향단야 그넛줄을 밀어라 먼 바다로 ↔ 예) 먼 바다로 향단이가 그넛줄을 밀어줬으면 좋겠다. 2. 작품 속 두 인물 이상이 서로 대사(시구)를 주고 받으며 전개되는 방식 예) 형님 형님 사촌 형님 / 시집살이 어떻게까 / 이에 이에 그 말 마라 / 시집살이 개집살이.
도교道敎(적 가치관)	일체의 인위적인 행위를 거부하는 '무위'를 뿌리로 삼는 중국의 사상 자연 속에서의 풍류, 신선, 옥황상제, 용왕 등의 전기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음.
도치	문장 성분의 순서를 뒤바꾸어 드러내는 표현 방식. 예) 나는 집에 가서 누워 있었다(일반적 순서의 문장) → 누워 있었다 나는 집에 가서(도치된 문장)
도피의 태도	주어진 상황을 피해 달아나려는 태도. 이 때 행위의 주체는 주로 부정적 상황에 놓여 있어야 함.
독백의 어조 ↔ 대화체	특별한 청자 없이, (대체로) 스스로의 내면을 드러내는 어조.
동경의 태도	대상, 상황을 간절히 그리워하여 그것을 바라는 태도. 이상을 바탕으로 형성됨. 예) 멀리 동해 바다를 내려다보며 생각한다 / 널따란 바다처럼 너그러워질 수는 없을까
동적인 분위기 ↔ 정적인 분위기	움직임이 느껴지는 분위기 ↔ 뻔 움직임이 없거나 작아서 조용한 분위기
[미]	
만연체 ≡ 긴 문장 ≡ 호흡이 느린 문장(체) ↔ 간결체	수식어와 접속어를 통해 길게 늘어뜨린 문장 형태. ↔ 뻔 주어와 서술어를 한 번씩 사용하여 짧게 표현한 문장 형태
말하기	※ 간접 제시 참조
매개	둘 이상의 사이를 이어주는 대상. 예) 백학이 수놓여 있는 부채가 그녀와 그의 사랑의 매개가 되었다.
명분	1. 일을 꾀할 때 내세우는 구실이나 이유 예) 이번 지우개 싸움은 도저히 명분이 없었다. 2. 각각의 이름이나 신분에 따라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도덕 예) 명분을 지키지 않은 A선비가 반성문 백 장을 쓰게 되었다.
명시 ≡ 구체적 제시 ↔ 묵시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드러내 제시함. ↔ 뻔 선명히 눈에 띄지 않는 상태로 은근히 드러냄.
목가적 ≡ 전원적 분위기	목동이 양을 데리고 다닐 것 같은 평온하고 조용한 분위기. 예) 파란하늘 파란하늘 꿈이 드리운 가을 언덕에 아기염소 여럿이 풀을 뜯고 놀아요 해처럼 밝은 얼굴로보트...
묘사	주로 시각적인 부분을 활용하여, 그림을 그리듯 상황, 대상을 자세하게 표현하는 표현. ※ 시각 외 다른 감각으로도 가능.



개념	설명
문답(법) ≡ 자문자답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전달하는 표현 예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 무엇이고 하니 그것은 바로 배고플 때 먹는 음식이다 이말씀이야
문장의 형태(5가지)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 각각의 종결어미로 실현됨. 예 간다, 가니?, 가라, 가자, 가는구나(!)
[보]	
배경	작품의 상황일 일어나는 바탕. 시간적, 공간적 배경으로 구성됨
반목	※ 갈등 참조
반복	특정 어휘나 표현, 구를 두 번 이상 드러내는 구성 방식.
반성의 태도 ≡ 성찰의 태도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태도. 반성 자체는 돌아봄만으로도 성립이 가능하고, 그 뒤 후회나 뿌듯함이 따라 올 수 있음. 예 나는 대문의 녹을 닦으며 내 깊고 어두운 생명 저편을 보았다.
반언어적 표현 ↔ 반 비언어적 표현	발화시, 말과 함께 드러나는 표현 요소들. 말의 높낮이, 크기, 장단 등으로 구성 예 (높은 톤으로) 밥먹어~, (작은 소리로) 밥먹어, (짧게 끊어서) 밥! 먹! 어! ↔ 반 의사소통의 상황에서, 말이 아닌 부분을 통해 드러나는 표현 요소들. 표정, 몸짓 등으로 구성 예 (진지한 표정으로) 밥먹어, (팔다리를 흔들며)밥먹어
반어	상황과 반대로 말하는 표현기법. 주로 부정적 상황을 긍정적으로 드러내려 함. 예 (공부를 안 해서 시험을 굉장히 못 봤는데) "어머, 우리 00이 시험을 엄청나게 잘 봐버렸네? 등 짝 마구 두들겨주고 싶다."
반영론적 관점	작품이 창작될 무렵의 시대 상황을 작품 감상의 중점으로 두고 감상하는 관점. 예 이 작품은 2030년의 인터넷 대란을 담아 내고 있는 작품이다.
발화 ≡ 대화	말, 대화를 시작함
방언 ≡ 사투리 ≡ (일상)생활어	특정 지방색, 향토색이 짙은 어휘로 상황, 대화를 구성하는 표현 방식 예 뭐라카노 저 편 강기슭에서
변화	A에서 B로 바뀜.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 이상의 상황이 존재해야함.
병렬적 구조(구성) ≡ 병치	사건, 상황,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를 두 덩어리 이상으로 나누어 전달하는 구성 방식.
보여주기	※ 간접 제시 참조
복합 감각적 심상	작품의 한 행에 두 가지 이상의 감각적 심상이 표현되어 있는 경우. 감각이 떨어져 존재한다는 점에서 공감각적 심상과 다름. 예 파랗다 하늘이 노랗다 얼굴이
부정적 ≡ 비판적 태도	알지?
분류 ≡ 구분	일정한 기준을 중심으로 대상의 구성 요소를 나누어 설명하는 서술 방식. 예 자동차,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이제부터 크기에 따라 자동차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분석	대상의 구성 요소를 상세히 설명하는 서술 방식. 예 저도 자동차 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자동차의 핵심 부품인 엔진을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분위기 ≡ 시적 정조	작품에서 느낄 수 있는 지배적 느낌. 좋거나 안 좋거나.
비교	대상과 다른 대상을 나란히 두고 견주어 봄.
비언어적 표현	※반언어적 표현 참조.
비유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다른 대상에 빗대어 드러냄. 주로 직유, 은유, 의인, 활유로 구성.
비장미	추구하는 바가 장애에 부딪혀 꺾일 때 느낄 수 있는 문학적 아름다움.
비판 / 비판적 어조	알지?
[시]	
사물	물질 세계에 있는 모든 구체적이며 개별적인 존재를 통틀어 이르는 말. 예 사람, 짐승, 인공물, 자연물
산문적(투) ↔ 운문적(투)	운율감을 느낄 수 없는 줄글 형식으로 문장을 구성하여 드러내는 방식. 예 소설의 문장 ↔ 운문적(투) 반복을 통한 운율감을 바탕으로 문장을 구성하여 드러내는 방식. 예 시의 문장
삽화식 구성	짧은 사건(이야기)들을 다양하게 끼워 넣어 교차해(바꾸어)가며 서술하는 방식. 예 ㄱ사건->ㄴ사건->ㄱ사건->ㄴ사건->ㄷ사건...
상승 / 하강의 심상	물리적으로 오르, 내리거나 분위기가 상승, 하강하는 모습을 드러냄.
상징(적 의미) ↔ 사전, 지시적 의미	이야기의 흐름, 문맥을 통해 형성된 의미 예 성북동에 번지가 생기면서 비둘기만이 집을 잃었다. ↔ 날말이 지닌 가장 기본적이고 객관적인 의미 예 웬 비둘기가 내 차에 X를 싸놓고 갔어.
서사	인물, 사건, 배경을 바탕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이야기로 작품을 전개 예 소설 문학류
서술	1. 사건을 진행하거나 글을 쓰는 모든 행위 2. 산문 문학에서 인물의 대사와 상황에 대한 묘사를 제외한, 서술자의 생각이 바탕이 되는 글쓰기 방법.
서술의 속도	사건이 진행되는 속도. 동일한 분량에 사건이 여러 개면 속도가 빠르고, 반대면 느림.



개념	설명
서술의 시점 時時點 ≡ 시제(timeline)	사건이 일어난 시간적 위치. <u>과거 현재 미래</u> 로 분류. 각 시제는 특정 어미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 예) <u>넌</u> 나를 좋아했었지. 예) <u>넌</u> 나를 좋아하는 중이지. 예) <u>넌</u> 나를 좋아할 것이지.
서술자(작가)의 개입 ≡ 편집자적 논평	주로 고전 산문 문학에서, 작품 밖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도 될 서술자가 자신의 흔적을 작품에 드러냄. 1_인물 성격의 직접 제시 예) 이 길동의 성격이 매우 더러우니 2_사건에 대한 서술자 주관적 감정의 제시 예) 아 슬프다 길동이 성격이 더럽구나 3_상황에 대해 독자에게 질문 예) 이러매 길동의 성격을 어찌 좋다 할 수 있겠는가
서술자의 교체 ≡ 시점의 이동	작품이 진행되며 서술자가 바뀌는 서술 방식. 주로 1 ↔ 3인칭 간의 서술자 변화로 드러남. ※ 황석영 작가의 '가객'을 제외하고, 졸업 전까지 거의 선택할 일 없음.
서술자의 태도 ≡ 서술의 어조	작품에 대한 서술자의 시각, 자세. 주로 긍정적 / 부정적 태도로 드러남.
서정	상황, 사건에 대한 화자의 내면 세계를 중심으로 작품을 전개 예) 시, 시가 문학류
선경후정	작품의 전반엔 상황이나 배경에 대한 객관적 묘사가, 뒷부분엔 그에 대한 서술자의 주관적 감정으로 진행되는 서술 방식. 예) 파란 바다 파란 하늘을 보니 멍든 내맘 멍든 내속이 더욱 쓰리다.
설득의 어조 ≡ 청유형 어조	완곡하게 자신이 원하는 바를 전달하는 어조. 예) 기침을 하자 시인이여
설명 ≡ 분석	사물, 상황, 사건을 잘 알 수 있도록 밝혀 말함. 주로 'A는(A이란), B이다'의 형태로 드러남. 예) '배탈'이란, 먹은 것이 체하거나 설사를 하는 배 속 병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설의	의문의 형식을 빌려 자신의 생각을 강조하여 드러내는 표현 방식. 평서문의 형태로 바꿀 수 있음. 예) 포장을 갖 뜯은 딸기파이가 바닥에 떨어졌어. 어찌 슬프지 않을 수 있겠어?
성찰 / 성찰의 태도 ≡ 반성 / 반성의 태도	※ '반성의 태도' 참조.
세태	사람들의 일상 생활, 풍습, 따위에서 보이는 <u>세상의 모습</u> . (※ 주로 부정적 속성을 내포함)
소시민	01. 상류층과 하류층 사이에 끼여 있으면서 사회, 사회 문제에 관심 갖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주로 부정적 속성을 내포함 02. (하류층에 가까운) 중간 계급. 주로 관심과 연민의 대상으로 드러남.
속도(감)	작품에서, 상황 전개에 빠르기를 가리킴. 요약적 서술일 경우 속도감이 ↑, 대사나 묘사일 때 속도감이 ↓
수미상관 ≡ 수미상응 ≡ 수미[쌍]관	작품의 시작과 끝 부분이 서로 유사하거나 동일한 형태로 구성된 서술 방식.
순행적 구성 ≡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구성 ≡ 추보식 구성 ↔ 역순행적 구성	과거 사건의 삽입이나 시제(time)의 이동 없이, 과거~현재~미래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구성된 서술 방식. ↔ ↔ 시간의 흐름이 뒤집혀 드러나는 서술 방식.
송고한 분위기 / 송고미	우아하지 못한 대상이 우아미를 추구하려 할 때 드러나는 분위기, 미의식. ※ 우아미 참조
시상 전개 방식 ≡ 시상의 흐름	운문에서 중심적으로 형성되어 나타나는 생각(들) / 그것들의 흐름.
시상의 전환 ≡ 어조의 전환	시의 진행 과정에서 시상이 전환되어 드러남. 주로 밝았다 어두워지거나, 좋았다 안 좋아지거나.
시상의 집약	시의 중심 생각이 시어, 시행 등 짧은 부분에 뭉쳐서 드러남. 예) 슬프다.
시상의 통일	유사, 동일한 부분의 반복을 통해 시적 안정성을 추구하는 서술 방식.
시상의 확산 ≡ 시상의 확대	한 대상에서 다른 대상으로 생각이 <u>움아</u> 가 커짐. 예) 나는 너에게 의미가 되고 싶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의미가 되고 싶다.
시어 / 시구 / 시행 / 통사구조 의 변주 ≡ 대구	큰 틀을 유지하며 시행의 일부를 바꾸어 반복하여 드러냄. 예) 사람이 강아지를 안았다. 사람이 꿩을 안았다. 사람이 깡통을 안았다.
시적 대상	작품에서 서술의 중심으로 삼는 것들. 사람, 상황, 감정 등 제약 없음.
시적 배경	시상이 전개되는 시간, 공간적 틀
시적 허용	①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나, ②문법적으로 틀린 표현을 작품 안에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함. 예) 광복동에서 만난 이중섭은 머리에 바다를 이고 있었다. 예) 하얀->하얀
시제	문장의 특정 부분(어미)이나 상황을 통해 알 수 있는, 상황이 일어나는 시간적 배경 예) 기본형 '먹다' → 먹었다(었/았->과거) / 먹는다(-ㄴ/는->현재) / 먹을 것이다(-ㄹ->미래)
신념	굳게 믿는 마음, 태도 예) 이제부터 나는 결코, 밤에는 스스로에게 먹이를 주지 않겠다는 신념을 지니고 살기로 했다.
심상 ≡ 형상화	감각적 표현으로 대상, 상황을 그려냄.
[오]	
안주安住의 태도	현재 위치에 <u>진정으로</u> 만족하거나(G) 현재 위치에서 더 이상의 노력을 하지 않으려는 태도(B).



개념	설명
암시	사건이 일어날 것을 은근히 드러냄.
언어유희	말(어휘)을 바탕으로 해학성을 드러냄. 1. 동음이의어를 활용한 언어유희 예 몽룡, 운봉의 갈비(사람의 갈비뼈)를 직신, "갈비(소갈비) 한 대 먹고 지고." 2. 비슷한 음운의 반복을 통한 언어유희 예 아, 이 양반이 허리 꺾어 절반인지, 개다리소반인지, 꾸레미전에 백반인지 3. 단어의 도치를 이용한 언어유희 예 "어 추워라, 문 들어온다, 바람 달아라. 물 마른다, 목 들어라." 4. 발음의 유사성을 이용한 언어유희 예 술 먹고 소란(계란) 먹네 / 거 신 것을 자꾸 좋아하니 시건방지진 않을까 몰라 5. 단어의 반복과 열거를 이용한 언어유희 예 모지도다 모지도다 도련님이 모지도다, 독하도다 독하도다 서울 양반 독하도다. 예 바위 툼툼이, 모래 째툼이, 참나무 곁곁이 다 찾아다녀도 샘님 비뚫한 놈도 없습디다.
애상적 분위기 ≡ 감상적 분위기	아프고 슬픈 분위기
액자식 구성	작품 속에 또 다른 이야기가 삽입되어 한 작품에 층위가 다른 두 가지 사건이 진행됨. 내화와 외화로 구성됨. * 비중은 주로 내화>외화.
어조 ≡ 목소리	운문에서, 화자가 중심이 되어 만들어 내는 분위기. 화자의 내면과 밀접한 관계를 보임.
어조의 변화	주로 운문에서, 시상이 진행되며 작품의 분위기가 바뀜.
여성적 어조 ↔ [] 남성적 어조	섬세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어조. 순종적이고 다소곳한 여성의 이미지를 주는 어조 예 가시렵니까 / 가시렵니까 / 나를 버리고 가시렵니까
여운	똑부러지게 마무리 되지 않아 생각할 여지가 남아 있음. 주로 서술어의 생략, 말줄임표, 명사형 마무리를 통해 실현됨. 예 당신이 많이 그리운 오늘입니다 -> 당신이 많이 그리운 / 당신이 많이 그리운..... / 당신이 많이 그리운 오늘.
역사적	다수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 상황, 사건.
역순행적 구성	* 순행적 구성 참조
역설逆說 ≡ 모순형용, 형용모순	01.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하나의 상황에 놓임. 예 그가 들어가며 나오고 있다 02. 일반적으로 어울리지 않는 대상들이 하나의 상황에 놓임. 예 외롭고 황홀한 심사이니 03. 力說. 힘주어 말함. (아주 드물게 이 뜻으로 쓰임. 한자의 모양도 다름) 예 야 이 친구야 내 말 좀 들어줘봐봐 내가 지금 역설하고 있잖아
연민의 태도	대상에 대해 보이는 안타깝고 불쌍한 감정. 대상에 대한 우호적 감정에서 형성됨.
연쇄	앞 구와 뒤 구가 유사한 형태로 연결되어 서술되는 서술 방식. 예 생각 끝에 한숨이오. 한숨 끝에 눈물이라. 눈물 끝에 이별이오. 이별 중에 피눈물이라. @ youtube.com에서 '영심이 숫자송' 검색해서 들어보면 도움이 됨
연역추리 ≡ 연역법 ↔ [] 귀납 추리	대전제(결론)을 바탕으로 사례를 이끌어 내는 추리 방식. 예 사람은 죽는다 -> 너는 사람이니 죽을 것이다
열거 ≡ 나열	두 가지 이상의 상황, 사례, 이야기들을 나란히 늘어뜨려 놓는 방식.
열정적 어조, 강렬한 어조 ≡ 감정적 어조	화자의 감정이 어휘나 어미로 표면에 드러나 펼쳐짐 예 허무한디! 독은 차서 무엇하느냐고?
영탄	감정이 집약되어 드러나는 표현 방식 느낌표!, -구나, -라, 설의적 표현 등으로 드러남. 예 아, 기쁘다! 예 슬프구나 / 기뻐라 예 어찌 기쁘지 않겠는가
예(옛)스런 어조 ≡ 의고依古적 문체	옛 소재나 옛 말투를 이용하여 예전 분위기를 만들어 내는 표현 방식.
예찬적 태도	대상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바탕으로 존경하고 찬양하는 태도. 예 님이여! 당신은 백 번이나 단련한 금결입니다.
완곡한, 부드러운 어조 ↔ [] 직설적 어조	상황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돌려 드러내는 어조. ↔ []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어조.
외재적 관점	작품의 감상 관점을 작품 자체가 아닌 작가/시대/독자에게 두어 감상하는 관점.
(인물, 사물의)외양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외적 갈등	인물의 내부가 아닌, 인물과 다른 인물의 사이에서 의견, 사고 방식이 충돌해 빚어지는 갈등.
외형률 ≡ 정형시 ↔ [] 자유시	작품을 창작하는 과정에서 운율감을 염두에 두고 창작한 작품. 예 시조, 가사, 한시 ↔ [] 자유롭게 내용을 전개하여 운율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작품
요지 ≡ 논지 ≡ 주제	작가, 서술자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
우아미	대상, 상황이 지닌 아름다움에서 자연스럽게 뿜어져 나오는 아름다움. 무엇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상태. 예 태연김, 나은손



개념	설명
운율 ≡ 리듬 Rhythm	반복에 의해 생긴 질서. 운문적 요소.
원경遠景 ↔ 近경近景	※ 근경 참조
우화 寓話	동물이나 인간, 신, 등 사물을 주인공으로 하여 전개하는 짧은 이야기. 주로 동물이 주인공이고, 풍자적인 것이 많으며, 격언이나 속담적인 것이 많음. 주로 도덕에 관한 것을 주로 취급하며, 결말에는 분명히 주제를 명시하는 것이 특징.
유교 儒敎(적 가치관) ≡ 유학	공자를 시조로 하는 중국의 사상. 삼강오륜을 덕목으로 삼아 섬김. 임금과 신하 사이의 충, 부모와 자식 사이의 효, 남편과 여편 사이의 열례를 중심 사상으로 함. 유사한 속성을 바탕으로 하나의 상황을 다른 상황에 미루어 드러냄.
유비추리 ≡ 유추	주로 어려운 내용을 쉽게 설명할 때 사용함. 예) 어둡고 긴 밤이 지나 밝은 아침이 오듯이, 우리의 삶도 힘겨운 시절을 지나면 밝은 날이 올 것을 믿읍시다.
율문, 율문투	운율감을 느낄 수 있는 글, 글에서 운율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 음보와 음수로 드러냄.
은유	표현하고자 하는 상태, 상황을 다른 상태, 상황에 숨겨 드러냄. 직유와 같은 형태적 표지가 없음. 예) 당신은 장미요. 이제 난 당신을 장미라 부르겠소. 여보 비장미!
음보율	시행에서 반복되는 박자가 형성될 때. 주로 3음보, 4음보로 드러남. 예) 가시리 가시리 잇고_3음보 예) 하늘은 날더러 바람이 되라하고_4
음성 상징어	소리나 모양을 글자로 표현해놓은 어휘들. 의성어와 의태어를 포함한 표현 방식. 예) 보글보글 보글보글 맛좋은 라면.
음수율	시행에서 반복되는 박자를 글자 수로 바꾸어 드러낸 방식. 예) 3.4, 4.4조(4음보) / 7.5조(3음보)
음위율	두 행 이상 시행의 동일한 위치에 유사하거나 동일한 시어를 반복 배치하여 운율감을 조성하는 방식. 위치에 따라 두운(첫머리), 요운(가운데), 각운(시행의 끝부분)으로 분류 예) ~흘리우리다 / ~뿌리오리다 / ~흘리우리다
의도적인 간격 설정	※ 여운 참조
의성 / 의태어	사람이나 사물이 내는 소리를 글자로 표현한 어휘들. 예) 뽀글뽀글 / 사람이나 사물의 행동, 움직임을 글자로 표현한 어휘들. 예) 등글등글 ※ 음성 상징어 참조
의식의 흐름 ≡ 자동기술법	서술자, 대상의 마음 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생각 없이 있는 그대로 서술하는 방식. ※ "광장/푸른 기차/소설가 구보씨.../유예/날개"가 아니라면 고르지 말 것.
의인	사람이 아닌 대상을 사람처럼 빗대어 표현하는 표현 방식 예) 바다가 날 꾸짖는다. 해물 좀 먹으라고.
의지	무언가 하려는 마음
이국적 분위기 ↔ 전통적 분위기	다른 나라에서 느낄 수 있을 법한 분위기 ↔ 한국에서 떠올릴 수 있는 이미지 예) 사갈의 마을에는 삼월에 눈이 온다 ↔ 한국 하늘로 날을 듯이 길게 뽑은 부연 끝 풍경이 운다
이데올로기 ≡ 이념	사회, 개인을 지배하는 생각 덩어리. 예) 민주주의, 사회주의
이상	대상, 서술자가 하고자 하는(꿈꾸는) 상황. 예)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이상향 ≡ 이상 세계	대상이나 서술자의 이상이 공간으로 그려질 때. 예) 어둡고 큰 방, 커다란 티브이, 먹을 것 가득한 어딘가로 가고 싶다. 그곳이 내 이상향이다.
이원, 이원적(2원적)	두 개의 요소로 이루어진 상황 ↔ 일원적 예) 세상은 하늘과 땅이라는 이원적 요소로 구성되어있다고 볼 수 있어.
인과	두 가지 이상의 행위, 사건, 상황이 원인과 결과로 연결되어 있을 때. 예) 미끄러워서 넘어져서 피나서 병원가서 돈이 없어서 도망가서 넘어져서 피나서 다른 병원가서 돈이 없어서...
인물의 성격 제시	※ 직접, 간접 제시 참고.
인용	다른 상황, 다른 시대, 다른 인물의 생각, 말, 표현 등을 따 와 드러냄. 직접 인용 "" 과 간접 인용으로 이뤄짐. 예) 그는 "공부는 귀찮음을 이기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부는 귀찮음을 이기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인칭 人稱	대화 또는 상황에서 누구를 가리키는지를 구별하여 가리키는 방법. 1인칭은 나[화자], 2인칭은 너[청자], 3인칭은 1인칭과 2인칭을 제외한 나머자들[떨거지들]에 해당함
일대기적 구성	대상 인물의 출생에서 사망까지를 다루는 구성 방식.
일반성 ≡ 보편성 ↔ 특수성	다수의 대상에게 적용 가능한 성질의 상황, 사고 방식 ↔ 제한적이고 소수의 대상에게 적용 가능한 성질의 상황
입체적	하나가 아닌 여러의 성격을 지닌 상황, 사물 예) 잠이 덜 깨서 눈을 반만 뜨고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더욱 입체적으로 보여!
입체적 인물	작품의 진행 과정에서 성격이 바뀌는 인물. 예) 나쁜 짓만 즐창 하다 깨닫고 좋은 일만 하게된 옹고집.



개념	설명
[ㅈ, ㅊ]	
자문자답 ≡ 문답	스스로 질문하고 답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 표현 방식.
자연물 ↔ ㉠ 인공물	인위적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저절로 존재 해온 사물들. 예) 나무, 하늘, 구름, 해, 달, 별 등 ↔ ㉠ 인간이 만든 사물들 예) 벽돌, 커피머신
자조적 태도	스스로를 비웃는 태도. 예) 하하하하 오늘도 삼각형 김밥이 내 삼 시 세 끼. 말해봐라 세상이 나는 얼마나 작으냐. 하하하 내 삶도 삼각으로 인생이 각이 졌네.
쟁점	둘 이상의 사이에 의견이 갈리는 부분 . 예) 세 시간 동안 싸웠던 상황의 쟁점은 결국 무얼 먹느냐네?
전기성 / 전기적	1. 대상이 살아온 일대기를 중심으로 서술하는 방식(전할傳기록할記) 2. 내용이 기이하고 비현실적임.(전할傳기이할畵) ※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2의 내용이 압도적으로 많이 쓰이니 مطم히 2로 알아둘 것.
절대자	전지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 ≡ 신, 인간의 소망을 실현할 수 있는 존재이므로, 인간이 원하는 바를 빌 때 자주 언급됨. 예) 화장실이 정말로정말로정말로 급해서 나도 모르게 그분 찾게 되었어.
절충	두 개 이상의 의견이 대립될 때, 대립의 중간 지점으로 의견을 조정하는 방법. 예) 1과 2를 절충해서 1.5
점층 / 점강	상황, 표현, 태도, 감정 등이 점점 강해 짐 / 약해짐. 예) 오늘은 80점 내일은 90점 모레는 100점.
정적인 분위기	※ 동적인 분위기 참조
정의	설명의 방식을 통해 대상의 의미나 특징을 드러내는 방식, (대체로) 사전에 실린 방식. A는 B(이)다의 설명 형태로 드러남. 예) 민주주의란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재	중심 소재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	3인칭 전지적 시점에서,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서술하는 방식. 특정 인물의 심리와 행동이 서술이 중심을 이루게됨 ※1인칭 주인공 시점과 혼동하면 곤란하다? 원하는 바를 실현하기 위해 주문을 외우며 소원을 비는 태도 . (비과학, 비논리적인 행위를 통해 이루어짐)
주술, 주술적 태도	예) 함나함나함 함나함나함 우리집으로 쟁반자장이 저절로 배달오게 해주시옵소서. 함나함나함 함.함나함나함
주제	작가, 서술자가 드러내고자 하는 중심 생각.
주체 ↔ 객체	행위를 하는 존재 ↔ 행위의 대상이 되는 존재 예) 내가(주체) 너를(객체) 좋아한다
직설적 어조 ↔ ㉠ 우회(간접)적 어조	상황에 대한 발화자의 생각을 돌려 드러내지 않고 직접적으로 표현 함. ↔ ㉠ 상황에 대한 발화자의 생각을 돌려 드러냄 예) 야 너 눈 예쁘다 ↔ 너의 눈은 파란 하늘을 닮았어
직유	대상을 다른 대상과 같게 빗대어 드러냄. “~같이, ~처럼, ~듯이, ~인 양” 등으로 구성
직접 제시 ≡ 말하기 ≡ 분석적 ≡ 직접적 ≡ 해설적 제시 ↔ ㉠ 간접 제시	※ 간접 제시 참조
청자, 구체적 청자 ≡ 듣는 사람 ↔ ㉠ 화자	작품 위에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듣는 사람. 주로 화자에 의해 호명됨. ↔ ㉠ 말하는 사람 예) 입이여, 당신은 백 번이나 단련한 금결입니다.
체념 / 체념적 태도	상황에 대한 희망을 버리고 , 상황에 대한 생각을 버림. 상황에 아무런 반응을 하려하지 않음. 예) 나는 이제 더 이상 그 사람을 그리워하지 않는다.
초월 ≡ 초연 ≡ 초탈	※ 달관 참조 예) 왜사냐건, 웃지요.
초월적 인물 / 공간	인간의 능력을 훌쩍 뛰어 넘는 존재들 예) 옥황상제, / 그들이 사는 공간적 배경 예) 극락, 천상세계
추상적 ↔ ㉠ 구체적	감각 기관으로 직접 느끼기 어려운 형태와 성질을 지닌 것들 예) 악당을 제외한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랑과 평화가 갖들기를 바라고 산다.
[ㄷ]	
통념	일반적인, 다수의 생각. 예) 사람들은 자기들이 길을 만든 줄 알지만 / 길은 순순히 사람들의 뜻을 좇지는 않는다.
통사구조 / 통사구조의 반복	문장구조(주어 목적 서술어의 배치 형태) / 문장구조가 반복되어 나타남. 대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 예)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갈까나 / 고기를 잡으러 산으로 갈까나
통시적 관점 ↔ ㉠ 공시적 관점	※ 공시적 관점 참조.
[표]	



개념	설명
평면적 인물 ↳ ㉠ 입체적 인물	작품의 끝까지 인물의 성격이 바뀌지 않는 인물형. ↳ ㉠ 작품의 진행 과정에서 성격이 바뀌는 인물형.
표제 / 부제	글의 주제를 큰 틀로 드러내 놓음. / 표제를 보충하는 제목.
표현론적 관점	작가의 인생, 작품 창작의 특징 등을 중심으로 작품을 감상하는 관점.
풍류	(주로 전원, 자연에서) 즐겁게 놀며 즐기는 생활 방식.
풍자	대상의 권위를 추락시켜 웃음을 드러내는 방식. 주로 부정적 모습의 기득권이 대상이 됨. 비판적 성격이 짙음.
[ㅎ]	
합일 ≡ 몰아일체	A와 B가 하나가 되는(굉장히 가까워지는) 상황. 주로 긍정적 대상과 하나 되고 싶은 마음으로 드러남. 예 청향淸香은 잔에 지고 낙홍落紅은 옷새 진다.
해학	1_ (작가에 의해 의도된) 우스꽝스러운, 웃긴 상황 예 이때 놀부가 X을 조러밧고 놀라 자빠졌는데 넘어질때 땅을 잘못 짚었는지 아 글썽 두 손 가득히 X이그냥... 2_ 웃기 힘든 상황에서 웃으려 보이는 노력 예 창을 내고자 창을 내고자 / 이내 가슴에 창을 내고자 / 가끔 하 답답할 때 여달아 볼까 하노라
향토적 ≡ 토속적 ≡ 전원적 분위기	시골 냄새 짙은 분위기.
현학적 태도	자신의 학문적 수준을 자랑하며 뽐내는 태도. 예 개 말하는 것좀 봐. 자기가 세상 모든 걸 다 아는 줄 알아. 베리베리 현학적이야.
화려한 문장(만연체) ↳ ㉠ 건조한 문장(간결체)	표현상의 특징이나 수식어가 많이 쓰인 문장 ↳ ㉠ 주어와 서술어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쓴 문장
화법	대화를 전개하는 방식. 예 설화를 바탕으로 전통적 정서를 그려내는 화법을 구사하고 있다.
화자	작품에서, 인물의 성격, 사건의 전개 등 작품을 이루는 것들에 대해 독자에게 말해 주는 존재를 가리킴. 작가 아님!
화자의 인식	화자가 상황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이는 모양새 예 그는 자장면을 좋게 인식하고 있다.
화자의 정서	화자가 상황에 대해 느끼는 감정 상태. 희, 노, 애, 락으로 알아둘 것!
화자의 태도 ≡ 화자의 대응	화자가 상황에 대해 보이는 대응 방식.
화제	이야기의 중심 소재.
환기	상황, 정서 등을 불러 일으킴. 예 참 신기하게도, 너의 그런 행동들은 늘 나에게 분노를 환기해.
환상적 분위기 ≡ 낭만적 분위기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거나, 현실에선 보기 힘들 만큼 좋은 분위기. 예 도시의 불빛이 닿지 않는 곳에서 아직도 온 세상이 별로 가득 차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다.
활유	생명이 없는 대상들을 생명이 있는 것처럼 빗대어 표현하는 방식. 예 바람이 달리다 넘어졌다.
회고, 회상의 어조 ≡ 반추	과거의 상황을 돌아보는 태도, 어조, 행동.
회의적 태도	상황, 대상에 의문을 품고 바라보는 태도 ≡ (대체로) 상황에 대한 부정적 태도
회한	상황, 대상에 뉘우치고 한탄함. 가슴속에 맺힌 안타까움 예 배부르다며 남기고 온 뉴욕치즈딸기케이크 한 조각 때문에 온종일 회한이 남는다.
회화적(이미지)	그림을 그리듯이 대상을 시각적으로 나타냄. 그러한 이미지. 시각 감각이 중심
효용론적 관점	독자가 작품을 감상하고 느꼈거나 작품을 바탕으로 깨달은 점을 중심으로 작품을 감상하는 관점. 예 난 이작품을 보다가 너무 슬퍼서 울었어. 새롭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
후렴구	민요나 시(가)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되는 부분으로, 일반적으로는 각 절의 마지막에 놓임. 후렴구가 있으면 반복, 통일성이 확보되고, 후렴구의 내용에 따라 주제를 강조한다는 진술도 가능함. 예 가시리 / 가시리 / 잇고 / 바리고 / 가시리 / 잇고 / 위 증줄가 대평성대
회개 ≡ 참회	잘못을 뉘우치고 고침 예 회개와 반성은 다른 거야. 반성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일이라면, 회개는 그것을 바탕으로 자신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고치려는 노력이지
희화화	대상의 모습, 상황을 우스꽝스럽게 그려냄. 해학과 풍자에 모두 적용 가능. 해학+희화화=웃음 ↑ 풍자+희화화=웃음 ↑, 비판성 ↑